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좌절의 정동: 로디 도일의 『푸드 트럭』에서 드러나는 상황 비극*

김 은 혜

I. 서론

1990년대 아일랜드 작가들이 주로 ‘암흑기’라 불리는 20세기 초중반 산업화 이전의 아일랜드 농촌을 작품의 소재로 다룬다면, 로디 도일(Roddy Doyle)은 변화하는 현대 아일랜드 사회상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는 1991년 『푸드 트럭』(*The Van*)으로 부커상 최종후보에 선정되었고, 1993년에는 『패디 클락 하 하 하』(*Paddy Clarke Ha Ha Ha*)로 부커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이기도 하다. 특히 『배리타운 삼부작』(*Barrytown Trilogy*)으로 불리는 『커미트먼트』(*The Commitments* 1988), 『아기』(*The Snapper* 1990), 『푸드 트럭』은 영화로 제작될 만큼 대중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도일은 그동안 아일랜드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5422).

사회에서 주변화된 도시 노동자 계층의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인 경건함이나 가톨릭 민족주의적 아일랜드성(Irishness)과는 거리가 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더블린 북부지역” 노동자층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Harte 24).

『배리타운 삼부작』은 모두 더블린 북쪽 교외 지역의 가상공간 배리타운에 거주하는 래빗(Rabbitte)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래빗 가족의 장남 지미 주니어(Jimmy Jr.)와 장녀 샤론(Sharon)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커미트먼트』와 『아기』는 전통적 가치가 약화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분투와 도전을 사실적으로 그러나 유쾌하게 그려낸다. 시트콤(situation comedy)과 같이 활기찬 분위기로 막을 내리는 전작들과 달리, 래빗 가족의 가장 지미 시니어(Jimmy Sr.)의 실직과 푸드 트럭 사업의 성패를 그리는 『푸드 트럭』은 시트콤을 연상시키는 에피소드들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결말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경제 불황으로 대량 해고와 실업이 만연하던 아일랜드의 1989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아기』에서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가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던 지미 시니어가 『푸드 트럭』에서는 실직한 가장으로서 남성의 자존감을 상실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품 말미에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우정도 상실한 채 무력한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퇴행한다.

따라서 그동안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도시 노동자 계층의 남성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즉, 경제적 주도권 상실로 인한 가부장적 남성다움의 위기에 주목하거나(Liam Harte, Caramine White),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지미 시니어의 상황을 도시 중심부로 편입되지 못한 노동자 계층의 소외로 이해하거나(Gerry Smyth), 전통적 역할 상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노동자 계층 가장의 모습으로 설명한다(Fintan O'Toole). 또는 지미 시니어의 푸드 트럭 운영을 비인간적 경제 체제하에서 잉여물로 취급받기를 거부하는 대안적 행위로 보는 연구도 있다(Åke Persson). 그러나 『푸드 트럭』의 암울한 결말과 지미 시니어의 퇴행은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노동자 계층 남성성의 위기를 보여준다는 분석에서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정동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작품의 배경(1989~1990년)과 출판연도(1991)가 갖는 함의와 관련 있다.

작품의 배경은 아일랜드가 초국적 금융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던 시기이다. 브라운(Terence Brown)이 인용한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보고서에 따르면, 1983년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10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 수당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 중 70만 명에게는 그것이 주요 소득원이었을 만큼 1980년대 초 아일랜드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있었다(317). 그리고 1986년에는 노동인구의 17%가 실직 상태였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Brown 353). 정부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1987년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하였고, 1989년에는 외국 기업에게 세금을 삭감해 주는 등의 정책으로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즉,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는 아일랜드 경제 급성장기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를 가능케 한 경제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커비(Peadar Kirby)가 주장하는 것처럼, ‘켈트의 호랑이’는 아일랜드의 높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 공공부문 지출 억제 그리고 임금 동결로 가능한 것이었다(“Introduction” 4). 1990년대 아일랜드 경제는 “규제 철폐, 기업의 자유, 자유 시장 원리”로 특징지어진다(Kitchin et al. 1303). 이는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1987년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긴축 정책과 외자 유치 중심의 경제 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1989년경부터 이러한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이 1990년 월드컵 결과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1991년 출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창작은 1990년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분쟁 종식을 향한 평화 프로세스는 1993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분쟁 종식을 위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접촉은 1990

년 10월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Brown 387), 작품 창작 시기인 1990년은 아일랜드에서 분쟁 이후(post-conflict) 체제로 전환하는 전초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 수립 이후 아일랜드를 지배해왔던 광신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이 약화되고 국가의 경제 발전이라는 실리적 목표 추구를 위해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푸드 트럭』에는 분쟁과 테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영국을 향한 배리타운 사람들의 적대감은 월드컵에서 아일랜드와 영국의 경기를 시청할 때만 표출될 뿐이다. 결국 독일이 이야기하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아일랜드는 민족주의 담론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실용주의적 경제 발전 기조와 국제화 담론이 확산되던 시기로,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확산과도 맞물려 있었다. 아일랜드가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90년대 중반 경제가 급성장하였지만, 커비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듯 아일랜드 경제 성장기 동안 소득 불균형은 꾸준히 악화되었으며 무한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은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9년 지미 시니어가 처한 상황은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개인의 현실을 예증한다고 할 수 있다.

지미 시니어의 일상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불안정한 삶을 버텨나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말이 비극에 가까우에도 불구하고, 지미 시니어가 푸드 트럭을 운영하며 느끼는 소소한 만족감이 작품에서 자세히 묘사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미 시니어는 푸드 트럭을 통해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푸드 트럭이 자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푸드 트럭은 오히려 그의 삶을 소진시키고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그를 몰아넣는다. 이런 그의 상태는 로런 벌랜트(Lauren Berlant)의 “잔인한 낙관”으로 설명될 수 있다.

벌랜트는 정동을 사회적·구조적 분석의 틀로 체계화한 이론가이다. 그레그(Melissa Gregg)와 시그워스(Gregory J. Seigworth)에 따르면, 들뢰즈

(Gilles Deleuze)와 마수미(Brian Massumi) 그리고 세즈윅(Eve Sedgwick)은 정동 이론을 단순한 감정 이론이 아닌, 문화적·정치적·윤리적 분석 도구로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벌랜트는 이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구조적 정동 분석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 들뢰즈는 스피노자(Spinoza)의 영향을 받아 정동을 사물과 관계의 한가운데에 위치시키며, 신체와 세계를 동시에 구성하는 역동적인 힘의 장으로 본다. 그의 관점은 정동을 단지 신체 내부의 정서가 아닌, 신체 간, 사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관계적 사건으로 확장시킨다. 마수미는 이 들뢰즈의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정동을 표상 이전(pre-representational)의 강렬도(intensity)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정동이 사고나 감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초과된 감각으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세즈윅은 정동을 심리적 감응과 문화적 맥락이 교차하는 윤리적 실천의 가능성으로 보고, 쿼어 이론과 문학 비평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Gregg and Seigworth 4-10). 이러한 정동 이론가들의 작업 위에서 벌랜트는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한다. 그의 잔인한 낙관 이론은 정동을 삶의 지속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의 조건으로 사유한다. 그는 정동을 진보나 해방으로 이끄는 긍정적 힘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주체를 억압 구조에 붙들어 매는 좋은 삶에 대한 환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정동을 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벌랜트는 『잔인한 낙관』(*Cruel Optimism*)에서 사람들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환상을 붙잡고 그것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객체에 “애착”(attachment)을 쏟아부으며 스스로를 소진한다고 주장한다(CO 1-2).¹⁾ 즉 벌랜트가 말하는 잔인한 낙관은 좋은 삶이라는 환상을 담지한 여러 형태의 애착이 더는 우리의 현재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포착하기 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좋은 삶이라는 환상이 투사된 객체에 애착을 보이지만 좋은 삶에는 도달할 수 없으며,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져 개인을 마모시키는 것이 신

1) Berlant, Lauren. *Cruel Optimism*. Duke UP, 2011. 앞으로 이 비평서의 인용은 이 책을 이용하며, 괄호 안에 CO와 쪽수로 표시하기로 한다.

자유주의의 특징인 것이다. 지미 시니어가 운영하는 푸드 트럭은 좋은 삶에 대한 치환물이기에 그는 푸드 트럭에 애착을 느끼며 그로부터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좋은 삶에 근접했다는 느낌을 줄 뿐 그에게 좋은 삶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은 “상황 비극”(situation tragedy)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CO 7). 벌랜트가 제시한 상황 비극은 “비극(tragedy)과 시트콤(situation comedy)이 결합한” 장르이다(CO 176). 상황 비극 속 인물들은 그들의 결점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운명에 처해있다. 등장인물들의 온갖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슬랩스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전통적인 질서의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시트콤과 달리, 상황 비극에서 등장인물들은 안정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불안정한 상황을 끝낼 수도 없는 “답보 상태”(impasse)에 빠져있다(CO 4).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좋은 삶에 대한 전통적인 환상, 예를 들어 서로를 이해하는 연인, 행복한 가정, 안정된 직업과 같은 환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좋은 삶에 대한 욕망은 특정한 객체에 투사되고 그 객체에 우리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일련의 약속들이 스며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 삶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객체를 지속해서 무비판적으로 간직하게 된다. 이렇게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을 붙드는 애착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개인을 마모시킨다. 잔인한 낙관은 이러한 욕망의 객체가 갖게 되는 모순성에서 비롯된다.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 삶의 조건이 위기의 일상성으로 구조화되어 있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다양한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을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 환상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답보 상태에 놓인다. 곤경에 처한 지미 시니어의 상황,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상적 가정, 안정적 직업, 남성적 자존감에 대한 그의 애착은 벌랜트가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의 정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론에서는 지미 시니어의 답보 상태와 좋은 삶에 대한 욕망을 투사한 애착물로서 푸드 트럭 그리고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비판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미

시니어의 상황을 벌랜트의 『잔인한 낙관』 이론으로 분석한다.

II. 지미 시니어의 불안감: 담보 상태

벌랜트가 말하는 곤경 또는 담보 상태란 “옛 틀로 새 경험을 온전히 인지할 수 없는데 상실과 불안정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를 뜻한다”(박미선 105). 벌랜트는 담보 상태를 “단단하게 붙들지 못하고 불안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CO 199). 붙잡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아서, 상황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재료들을 모으느라 “각성 과잉”이 요구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담보 상태이다(CO 4). 즉, 담보 상태의 개인은 모호함과 불안정 속에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바둥댄다. 바우만(Zygmunt Bauman)은 불확실해서 정체를 알 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으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공포라 부른다고 말 한 바 있다(2). 그에 따르면 공포는 이해하기 힘든 만큼 두려운 것이지만 공포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공포에 대처할 방법이나 예방책을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무력감이다(20).

이 같은 맥락에서, 갑자기 실직 상태로 내던져진 지미 시니어가 작품 내내 “난 모르겠어”(I don't know)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는 벌랜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전 세대의 리얼리즘 장르”(older realist genres)의 쇠퇴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CO 6). 여기서 장르란 어떤 경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정동적 기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정된 직장과 친밀한 가족, 계층상승과 같은 그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좋은 삶의 모습이 리얼리즘 장르라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러할 틀로 삶을 이해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리얼리즘 장르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 지미 시니어는 건축 현장에서 미장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평생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된 후,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꾸러나갈지 감을 잡지 못한다. 리얼리즘 장르가 익숙한 그에게는 이 상황이 공포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기에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각성 과잉 상태로 안절부절못한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담보 상태에서 마당 가꾸기, 담장 손질, 손녀 돌보기 등 효용성 있어 보이는 일을 찾아 행한다.

물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녀까지 일곱 식구가 실업급여로 몇 달째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미 시니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상황만이 아니다. 경제력 상실과 함께 가부장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것도 그를 불안하게 한다. 그동안 그는 생활비를 주는 것, 자식들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으로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된다고 여겼고 그것으로부터 가장의 권위가 유지된다고 믿어왔다. 그러므로 경제력 상실 후 그는 자신이 임금 노동자, 아버지, 남편의 역할 모두에서 내쫓겼다고 느끼며 위축된다. 스미스(Gerry Smyth)도 지적하는 것처럼, 작품의 첫 장면에서 지미 시니어가 집 안에 있을 곳이 없어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은 이러한 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3).

게다가 가족 모두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자신만 뒤처진다는 느낌은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워커(Charlie Walker)와 로버츠(Steven Roberts)는 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의 효용성은 노동자 계층 남성성의 버팀목이었으나, 산업의 형태가 서비스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들이 점점 주변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층 남성들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변화와 자기계발 영역에서 시대에 발맞출 수 없었다(1-3). 지미 시니어도 건설현장에서는 베테랑 기술자였지만 다른 분야의 일은 낯설다. 그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말하는 등 서비스업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가 읽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듀마(Dumas)의 소설 『철가면』(*The Man in the Iron Mask*)은 이러한 그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매카시(Dermot McCarthy)는 지미 시니어가

읽기로 선택한 책 제목 『철가면』은 그가 남성성의 가면 뒤에 간혀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남성성의 강점은 역경을 극복하는 강철같은 저항력이지만, 동시에 변화 앞에서 확고부동한 태도로 저항하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90). 이처럼 변화하려 하지 않는 그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기 위해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내 그리고 운동과 학업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멋지게 성장하는 아들을 지켜보며 뿌듯함과 초조함의 양가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도 끝까지 읽지 못하는 자신을 무능력하게 여긴다.

그러나 지미 시니어가 상실한 것들만이 그를 담보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일상적으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굴복하게 만들 때 우리는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계속 환상을 유지하려 하고 그때 담보 상태는 지속된다. 벌랜트의 설명대로 “잔인한 낙관은 문제적 대상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는 상황”이다(CO 24). 다시 직장을 갖게 되면 가부장의 권위를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지미 시니어는 포기하지 못한다. 그에게 직장은 좋은 삶에 대한 애착이다. 이러한 애착이 잔인한 것은 약속의 대상에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그것 주위를 빙빙 돌며 머뭇거리게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다시 일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간직할 채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는 그에게 수수께끼와 같다. 바우만의 주장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은 지미 시니어에게 공포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의 불안감은 신체 증상으로 발현된다.

늘 뱃속에 이상한 느낌이 가득 찬 날들이 있었다. 마치 방귀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바지를 입었을 때 너무 팍 끼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바지는 멀쩡했다. 하지만 몸 안 어딘가에 단단한 공기 덩어리가 자리 잡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나쁜 종류의 흥분이었고,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건 마치,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가 퇴근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기다리던 그때와 비슷했다. 아버지는 늘 가죽 벨트

를 썼다. . . . 그 고통은 참담했지만, 사실 기다림이 더 끔찍했다. . . . 그는 온종일 뚱 마려운 아이처럼 겁에 질려 지냈다. . . . 그리고 지금 그는 가끔, 아니, 자주 그런 식으로 느꼈다. 완전히 겁에 질려서, 왜 그런지조차 알지 못한 채. (BT 395-96)²⁾

요즘 지미 시니어가 느끼는 불안은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단한 공기 덩어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이 감정을 어린 시절, 아버지의 퇴근 후 예정된 매타작을 종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며 느꼈던 불쾌한 공포감에 비유한다. 그가 논리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불안감과 무력감은 체벌의 공포와 유사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그를 아버지의 구타를 무력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정서 상태로 퇴행시킨다.

III. 푸드 트릭: 잔인한 낙관과 애착

잔인한 낙관은 욕망하는 대상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상실에 앞서 미리 그 “대상에 머물고자”하는 역학,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을 간직하는 상황을 말한다(CO 23). 대상이 약속하는 일들에 근접한다는 느낌 때문에 애착은 낙관적이다. 그러나 그 대상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음에도 계속 그것을 향해 달음질하는 개인을 마모시키기에 애착은 잔인하다. 또한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삶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애착을 포기하지 못하기에 잔혹하다. 지미 시니어에게 푸드 트릭은 실직으로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에 낙관적이지만, 그에게 좋은 삶이 아니라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잔인하다. 불안하고 우울하며 지루한 날들을 보내던 지미 시니어에게 푸드 트릭은 새로운 기회였다. 특히 가장 친한 친구 빔보(Bimbo)와 함께하는 일이어서 그는 더욱 행복하다. 제빵사로 일하다 예고 없이 해고당한 빔보

2) Doyle, Roddy. *The Barrytown Trilogy*. Vintage, 2013.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을 이용하며, 괄호 안에 BT와 쪽수로 표시하기로 한다.

는 폐물이나 다름없는 푸드 트럭을 마련하고 피시앤칩스와 햄버거를 팔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미 시니어에게 동업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처음에 지미 시니어는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친구의 일을 도우면서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에 만족했다. 그러나 점점 그는 푸드 트럭이 좋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게 되고 그것에 대한 애착을 키워간다.

지미 시니어는 푸드 트럭만 있다면 안정된 삶, 화목한 가정, 아버지로써의 권위 그리고 남성성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푸드 트럭이 빚보와 지미 시니어에게 예상치 못한 수익을 가져다주었고 지미 시니어는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BT 508).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아들 대런(Darren)과 딸 샤론이 푸드 트럭에서 시간제로 일하게 되면서 어색하고 데면데면하던 그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 보이기도 하다. 푸드 트럭은 지미 시니어에게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게 해주는 듯했을 뿐 아니라 배리타운의 남성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해준다. 실직 전 그는 매일 저녁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들, 그들과 함께하는 분위기는 그가 “배터리를 충전”해서 내일의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BT 378). 그러나 실직 후 친구들에게 술을 돌릴 수 없게 된 그는 술자리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즉 지미 시니어의 실직은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 유대감 박탈도 의미한다. 하지만 푸드 트럭에서 일하게 된 후 그는 친구들과의 유쾌한 술자리를 되찾게 되었고 이는 좋은 삶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지미 시니어는 또한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릴 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가족 외식을 하고 비싼 양복을 구매하기도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과 선물은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가진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면, 양복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 계급으로의 신분 상승을 이룬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했고, 현재는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지미 시니어가 양복을 차려입을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데도 수입이 생기자 양복을 사들인 지미 시니어의 행위는 “공모적 남성성의 집단”(complicit group of masculinities)에 포함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워커와 로버츠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특징인 경제 발전의 불균등성은 낮은 학력의 남성 다수를 주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공모적 남성성의 집단에서 떨어져 동성애자, 소수 인종, 여성처럼 전통적으로 주변화되어온 집단 쪽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7). 푸드 트럭 운영으로 얼마간의 자본이 생기자 지미 시니어는 자신이 공모적 남성성의 집단 혹은 주류 남성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이런 그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양복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양복을 차려입고 도시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빔보를 데리고 시내로 나간 일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푸드 트럭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빔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남성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빔보와 함께하는 하룻밤의 일탈을 계획한다. 도시를 잘 알지 못하는 빔보를 이끌고 함께 일탈을 저지름으로써 그는 빔보와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그는 양복을 입고 고급 바에 들어가 낯선 도시 여성들에게 값비싼 와인을 사주며 자신이 도시의 부유한 남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만약 지미 시니어가 정말로 어떤 여자를 벽 뒤로 데려가 만지작거리거나, 심지어 관계를 맺으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시내까지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배리타운에는 진료소 뒤편으로 같이 가줄 여자들이 많았다. . . .

지금 그들은 가장자리가 아니라, 사람들 틈 한가운데 있었다.

지미 시니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젊거나, 비록 그렇게 젊진 않더라도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그런 여자들과 연결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막상 가능성이 보이면 뒤로 물러날 작정이었다. 실제로 잠자리를 원하는 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BT 582)

양복 주머니에 두둑하게 들어있는 현금은 그에게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부로 진입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도시의 세련된 바를 출입하는 화려한 여성들에게 선택받는다면 자신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남성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다. 이처럼 푸드 트럭을 운영하면서 지미 시니어는 임시로나마 좋은 삶에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느낌일 뿐 도시에서의 그의 모험은 실패로 끝난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주류 사회로 편입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목표에 가까이 있다는 근접성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조차도 우리를 버티게 하여 우리를 마모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푸드 트럭은 월드컵이 가져다주는 환상과도 같다. 도일은 이 작품에서 1990년 월드컵 경기 결과를 사실 그대로 사용한다. 90년 월드컵에서 아일랜드는 8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특히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한 골을 넣어 일대일 무승부를 얻어내면서 월드컵 흥행을 견인하였다. 작품에서 술집에 모여 경기를 보던 사람들은 아일랜드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득점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영국 식민 지배 시기에 받았던 핍박을 통쾌하게 복수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한다. 월드컵 개막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지미와 빔보의 푸드 트럭은 월드컵 열기 덕에 최고의 수익을 낸다. 사람들은 경기 후에 음식을 사 먹기 위해 푸드 트럭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아일랜드가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고 해서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푸드 트럭의 일시적 성공이 지미 시니어에게 좋은 삶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월드컵이 끝나고 열기가 가라앉자 푸드 트럭의 흥행도 사그라들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빔보의 아내 매기(Maggie)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며 푸드 트럭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푸드 트럭 운영뿐 아니라 빔보와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한 지미 시니어의 불만은 조금씩 쌓여간다. 가족을 제외한다면 지미 시니어에게 빔보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을 주는 단 하나의 대상이었으며, 그와 빔보는 실직상태에서 서로에게 안

도감과 유대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푸드 트럭을 함께 운영하면서 둘 사이에는 오해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미 시니어는 푸드 트럭의 동업자에서 직원으로 강등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미 시니어와 빔보의 신뢰 관계는 급속히 와해된다. 좋은 삶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푸드 트럭은 오히려 지미 시니어를 이전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

좋은 삶을 성취할 수 없어도 그것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며 자신을 소진하는 것이 잔인한 낙관이라면, 푸드 트럭에서 일하며 빔보와 갈등을 겪는 지미 시니어는 잔인한 낙관을 체현하는 인물인 듯하다. 빔보와의 갈등으로 푸드 트럭에서의 시간이 괴롭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푸드 트럭이 약속한 좋은 삶을 포기할 수 없어 그 고통에 머무르는 지미 시니어의 상황은 잔인하다. 푸드 트럭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는 이전에 느꼈던 원인 모를 답답함과 더부룩함을 또다시 느낀다. 즉, 푸드 트럭은 지미 시니어에게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 좋은 삶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을 뿐이며 그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빔보와의 관계에서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빔보로부터 매주 주급을 받게 된 것이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는 다시 실업자로, 그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미 시니어는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저녁에 일하고, 괜찮은 주급을 받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이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라고 스스로 되뇌지만 때로 울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쯤 되면 푸드 트럭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이루게 해줄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마모시키면서도 푸드 트럭이라는 애착을 포기하지 못한다.

IV. 어린아이로의 퇴행: 상황 비극

지미 시니어가 실업 상태에서 가족들과 만들어내는 사건들, 폐차 직전

의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장사를 하며 겪는 다채로운 사건들은 유쾌한 어조로 서술되지만 그 내용은 불안의 정서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지미 시니어가 시트콤 장르에 살고 있다면, 그가 겪는 이러한 일들이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시트콤에서 주인공은 우스꽝스럽고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웃음을 자아낼 뿐 그로 인해 파괴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지미 시니어가 사는 현실은 상황 비극이다. 벌랜트에 따르면 “상황 비극”은 “불안정한 공적 영역(public sphere)이 만들어낸 새로운 대중 장르”로 상황 비극에서는 개인이 속한 세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해져 있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가 의지하던 환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절망적 상황이다(CO 6). 이 장르의 절망에 갇힌 개인에 대한 에피소드를 묘사하며, 여기서 절망은 존재론적 비극이나 영웅 서사와 달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상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스트레스에 의해 형성된다(CO 290). 상황 비극에서 주요 인물들은 최소한의 인정, 소속감, 정상성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와 그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배제 사이에서 흔들린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마치 시트콤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채 공포스러운 “비장소”(nonplaces)에서 살아간다(CO 177). 비장소는 개인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 공간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소외, 정동적 공허감, 불안정한 자아를 경험하게 된다. 상황 비극에서 살고 있기에 그 모든 노력과 소소한 행복들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끝에 지미 시니어가 속한 곳은 비장소이다.

다시 말해 상황 비극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공공영역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위기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르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지미 시니어와 빚보의 상황,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상황은 이들이 상황 비극 장르에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페르손(Åke Persson)은 이들이 푸드 트럭을 운영하게 된 것을 일종의 대안 경제이자, 비인격적인 경제 체제에서 잉여

인력이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해석한다(66). 그러나 푸드 트럭은 자본주의 논리와 신자유주의의 불안정한 정동에서 자유로운 제3의 공간이 아니다. 이곳에서 지미 시니어와 빔보의 우정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논리에 압도당한다. 그래서 푸드 트럭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좌충우돌 슬랩스틱은 시트콤이 아니라 상황 비극의 결말로 향한다.

푸드 트럭 사업은 이 둘의 우정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름때 범벅에 바퀴도 엔진도 없는 고철 덩어리 밴을 빔보가 구입하고, 빔보와 지미 시니어가 함께 수선해서 푸드 트럭 장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월드컵 종료 후 수익의 일부로 엔진을 구매해 엔진 없던 푸드 트럭에 부착한다. 따라서 지미 시니어는 “그 엔진은 빔보만큼이나 자기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BT 515). 이와 같은 지미 시니어의 의식은 푸드 트럭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그가 느끼는 불안감과 모호한 감정 상태를 드러낸다 할 수 있다. 한 편으로 그는 빔보가 동업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아니라, 푸드 트럭을 단장하는 데 자신의 공이 컸기 때문에 푸드 트럭의 공동 소유주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푸드 트럭을 구입하는 초기 자본을 빔보가 마련했기 때문에 애당초 자신이 빔보와 동등한 동업자가 되는 것은 경제 논리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 구매에 공동으로 투자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푸드 트럭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커(Keith Booker)도 지적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지미 시니어와 빔보의 불화 원인이 된다. 이들은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서로를 소외시킨다. 자본의 논리는 그들의 우정에 계층을 끌어들인다(39). 지미 시니어가 빔보에게 푸드 트럭의 이름을 “빔보와 지미의 버거”(Bimbo and Jimmy's Burgers)로 바꾸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빔보가 단칼에 이를 거절한 것은 이 둘의 관계가 더 이상 동업자가 아님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BT 558). 지미 시니어는 푸드 트럭 운영에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수용되지 않는다든지, 빔보의 아내 매기가 결정권을 쥐는 것을 마땅치 않

게 여긴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푸드 트럭 구입 자본과 연결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자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빔보도 마찬가지로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했다는 이유로 지미 시니어를 고용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 그는 지미 시니어에게 앞으로 50대 50으로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주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다.

이 순간부터 빔보와 지미 시니어의 관계는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대립하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변화한다. 빔보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가 너무 충격적이지만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지미 시니어는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빔보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아들 대런이 노동자계급으로는 드물게 곧 대학에 입학할 텐데 그를 위해서라도 지미 시니어는 푸드 트럭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빔보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빔보에게 불만을 표출한다. 두 시간당 십 분의 휴식을 보장하러던가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에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미 시니어의 요구에 빔보는 그가 배은망덕하다는 듯 응답한다. 이전에는 돈 때문에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꼈다면 지미 시니어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푸드 트럭은 빔보와 지미 시니어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비장소가 되었다.

화이트(Caramine White)가 이들의 붕괴하는 관계를 80년대 영국 정치와 비교한 것처럼, 이 둘의 갈등은 대처의 계급 간 전쟁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보상과 행복을 보장하는 체제로서 찬송 받은 자본주의는 상호 간 이익 대신 서로의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을 도일은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95). 지미 시니어는 노조에 가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빔보를 겁주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한다.

정말 기막힌 생각이었다. 둘 다 배꼽이 빠지게 웃었지. 그리고 버티 말이 맞았던 거다. 그 편지는 거의 총알 아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권총 같았달까. . . .

— 진짜 노조에 가입할 거야? 빔보가 말했다. 목소리는 약간 상처받은 듯했고 지쳐 보였다. . . .

지미 시니어는 몸을 뒤로 젖혔다.

— 난 그냥 내 자신을 챙기려는 거야. 그가 말했다. — 그리고 내 가족도.

빔보는 기침을 했고, 말을 이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다.

— 말해두지만, 그가 말했다. — 네가 노조에 가입하면 넌 여기서 일 못 해. (BT 612-13)

여기서 지미 시니어는 노동조합에서 온 편지를 권총처럼 느끼는데 이는 노동자로서 자본가에 대항할 유일한 무기가 노동자들의 연대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도 노동자였음에도 빔보는 노조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조를 적대시한다. 그러나 1984년부터 1985년까지 대처 정부의 강경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영국 광부 파업이 노동운동의 영향력 약화와 대처의 위상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듯, 지미 시니어의 권총은 신자유주의 앞에서 무기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자비한 경쟁과 대규모 자본 앞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빔보도 태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은 처지이다. 지미 시니어와 빔보가 서로를 배척하면서도 푸드 트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결과이다. 그들은 복지국가의 후퇴, 노동시장 유연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확산이라는 변화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났고 생존을 위해 붙잡을 만한 것에 없애었다.

답보 상태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지미 시니어는 푸드 트럭이 보여주는 좋은 삶이라는 미래에 애착을 보이지만 이는 그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좋은 삶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은 이전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 결국 빔보와 크게 다툰 지미 시니어는 빔보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푸드 트럭에서 손을 떼겠다고 통보한다. 빔보는 지미 시니어와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둘 사이 관계 악화의 책임을 푸드 트럭에 전가하면서 트럭을 물 빠진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나간 후 바다에 잠기도록 놔두고 돌아온다. 지미

시니어는 어떤 노력도 둘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한다. 이제 지미 시니어는 좋은 삶의 매개물이었던 푸드 트럭도 없고 불안한 삶을 버티게 해주었던 친구마저도 없다. 빚보와 푸드 트럭 모두를 잃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 베로니카(Veronica)가 누운 침대 옆에 앉아 그녀에게 포옹해달라고 말한다. 그 모든 우여곡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이 “나 좀 안아줘”(I need a hug, BT 633)이다. 상황 비극의 결과가 그렇듯, 지미 시니어는 사회적 의미를 상실하여 존재적으로 불안한 존재, 정서를 공유할 이가 아무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된다. 특히 배리타운처럼 사적 영역이 쉽게 침해되는 “관계의 밀도가 증대된” 사회에서 두 친구의 불화로 인한 푸드 트럭의 실패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패배감을 줄 수 있다(Kim 78). 마치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와 같은 상태로 퇴행한 지미 시니어를 보여주는 이 결말이 비극적이고 두려운 것은 애착 대상의 상실로 인해 다시 희망을 품을 능력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이 작품에서 도일은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그려내는 지미 시니어의 삶은 신자유주의 앞에서 무력한 개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 안정된 직장, 경제적 안정, 내 집 마련 등 기존의 삶의 이상, 벌랜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리얼리즘 장르의 이상을 포기한 세대들이 소비 가능하고 일상적인 소소한 것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에서 삶의 의미를 찾듯, 지미 시니어는 푸드 트럭을 통해 좋은 삶에 다가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소망과 달리, 푸드 트럭은 그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여줄지언정 그가 생각하는 좋은 삶으로 그를 데려다주지는 않는다. 지미 시니어에게 좋은 삶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된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 친구들과 굳건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 경제적 성공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고 주류 남성사회

의 중심으로 편입하는 것 등일 것이다. 푸드 트럭이 그에게 안겨주는 얼마간의 돈은 그가 좋은 삶에 다가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전통적인 좋은 삶은 환상일 뿐이다. 그는 빚보와의 갈등으로 뺏속 가득 답답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삶을 약속하는 듯 보이는 푸드 트럭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푸드 트럭이 가져다줄 미래의 좋은 삶이라는 환상 때문에 푸드 트럭에 머물수록 강해지는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지미 시니어의 상황은 잔인한 낙관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은 지미 시니어가 어린아이처럼 아내에게 안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트(Liam Harte)는 지미 시니어가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즉, 이것이 그동안 모든 감정을 억눌러왔던 지미 시니어에게 의미 있는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처음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은 강박적 남성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45). 그러나 지미 시니어의 삶은 시트콤이 아니라 상황 비극의 구조 속에 있다. 그가 강박적 남성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매우 운 좋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해도 그래서 마치 시트콤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노력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적 상황 비극 속에서 그는 ‘전통적 의미의’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력감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밀려드는 바닷물에 빠르게 잠기는 푸드 트럭의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물에 잠겨가는 푸드 트럭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시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삶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지미 시니어가 겪는 상황 비극을 통해 도일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감과 무력감의 정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대)

인용문헌

- 박미선. 「로렌 벌랜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여성이론』, 제33권, 2015, pp. 99-125.
- 벌랜트, 로런. 『잔인한 낙관』. 박미선, 윤조원 옮김, 후마니타스, 2024.
- Bauman, Zygmunt. *Liquid Fear*. Polity Press, 2006.
- Berlant, Lauren. *Cruel Optimism*. Duke UP, 2011.
- Booker, M. Keith. “Late Capitalism Comes to Dublin: ‘American’ Popular Culture in the Novels of Roddy Doyle.” *ARIEL*, vol. 28, no. 3, 1997, pp. 27-45.
- Brown, Terence. *Ireland: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1922-2002*. Harper Perennial, 2004.
- Doyle, Roddy. *The Barrytown Trilogy*. Vintage, 2013.
- Gregg, Melissa, and Gregory J. Seigworth. “An Inventory of Shimmers.” *The Affect Theory Reader*, edited by Melissa Gregg and Gregory J. Seigworth, Duke UP, 2010, pp. 1-25.
- Harte, Liam. *Reading the Contemporary Irish Novel 1987-2007*. Wiley-Blackwell, 2014.
- Kim, Sangwook. “*The Snapper*: Sharon’s Pregnancy and the Irish Catholic Ethos.”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30권, 2호, 2024, pp. 61-82.
- Kirby, Peadar. “Contested Pedigrees of the Celtic Tiger.” *Reinventing Ireland: Culture, Society and the Global Economy*, edited by Peadar Kirby et al., Pluto Press, 2002, pp. 21-37.
- Kirby, Peadar, et al., editors. *Reinventing Ireland: Culture, Society and the Global Economy*. Pluto Press, 2002.
- . “Introduction: The Reinvention of Ireland: A Critical Perspective.” *Reinventing Ireland: Culture, Society and the Global Economy*, edited by Peadar Kirby et al., Pluto Press, 2002, pp. 1-18.

- Kitchin, Rob, et al. "Placing Neoliberalism: the Rise and Fall of Ireland's Celtic Tiger."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44, no. 6, 2012, pp. 1302-26.
- McCarthy, Dermot. *Raining on the Parade*. Liffey, 2003.
- O'Toole, Fintan. "Working-Class Dublin on Screen: The Roddy Doyle Films." *Cineaste*, vol. 24, no. 2/3, 1999, pp. 36-40.
- Persson, Åke. "Between Displacement and Renewal: The Third Space in Roddy Doyle's Novels." *Nordic Irish Studies*, vol. 5, 2006, pp. 59-71.
- Smyth, Gerry. "The Right to the City: Representations of Dublin in Contemporary Irish Fiction." *Contemporary Irish Fiction: Themes, Tropes, Theories*, edited by Liam Harte and Michael Parker, Macmillan, 2000, pp. 13-34.
- Walker, Charlie, and Steven Roberts. "Masculinity, Labour and Neoliberalism: Reviewing the Field." *Masculinity, Labour and Neoliberalism: Working Class Me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edited by Charlie Walker and Steven Roberts, Palgrave Macmillan, 2017, pp. 1-28.
- White, Caramine. *Reading Roddy Doyle*. Syracuse UP, 2001.

Abstract

The Advent of Neoliberalism and the Situation Tragedy:
Roddy Doyle's *The Van*

Eunhey Kim

This paper examines Roddy Doyle's *The Van* as a poignant literary reflection of the affective condition of individuals living under neoliberal restructuring in late 20th-century Ireland. Focusing on Jimmy Sr., a laid-off working-class father, the study argues that his persistent yet futile pursuit of a "good life" through a food truck business embodies Lauren Berlant's concept of cruel optimism. Jimmy Sr.'s daily struggles in *The Van* reflect the precarious condition of individuals navigating life under neoliberalism. For Jimmy, the truck becomes a source of modest achievement and a symbolic vehicle for the hope of a better life. Despite his small moments of happiness, Jimmy Sr. remains trapped in an impasse, revealing the exhaustion and affective damage caused by clinging to unattainable ideals. Jimmy Sr.'s condition exemplifies what Lauren Berlant defines as situation tragedy, a genre emerging from the instability of the neoliberal public sphere. Unlike sitcoms, where disruption leads to harmless humor, situation tragedy reveals a world already too fragile, where even minor actions can collapse the fantasies that sustain life. Trapped between partial inclusion and total exclusion, Jimmy Sr. clings to the illusion of normalcy, only to find himself relegated to a social nonplace marked by anxiety, exhaustion, and loss of recognition. Ultimately, *The Van* critiques neoliberalism's erosion of solidarity and stable subjectivity by portraying the protagonist's regression into childlike helplessness and disillusionment.

■ Key words: Roddy Doyle, *The Van*, Ireland, Lauren Berlant, *Cruel Optimism*, neoliberalism, situation tragedy
(로디 도일, 『푸드 트럭』, 아일랜드, 로런 벌랜트, 『잔인한 낙관』, 신자유주의, 상황 비극)

논문접수: 2025년 6월 1일

논문심사: 2025년 6월 1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16일